



# 군수·울곡제도 획기적 개선에 박차...

- 국방제도 개선위원회 발족 -

**국방부**는 국군의 현대화 및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것은 물론 국민의 관심과 조세부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울곡사업」과 제반 군수업무의 투명성, 합법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국방제도개선위원회」를 1월 10일 발족하여 본격적 업무에 돌입하였다.

「국방제도개선위원회」는 국방부, 합참 및 육·해·공군에서 전문관계관들은 물론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요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울곡사업」의 전반을 관장하는 위원회와 군수업무의 제반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구성하여, 「울곡」 및 군수업무의 추진과 관련하는 모든 분야에 걸친 투명성의 증대책을 강구하게 되며, 그 책임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개선책을 강구하게 된다.

앞으로 「국방제도개선위원회」가 마련하



게될 여러가지 개선책을 통해 60만의 전투력이 보다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울곡사업」은 물론 제반 군수업무가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

# 軍 실무경험 고급두뇌 국방정책개발에 활용

- 「한국군사문제 연구원」설립 -

**국방부**는 지난 91년도부터 군인공제회에 설치, 운영해 오던 군사문제연구소를 올해 1월 1일부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으로 재설립, 운영한다.

새로 발족하는 「군사문제연구원」은 국방부차관을 이사장으로 하고, 국방부와 각군 대표등 11명의 이사, 석사이상의 자격을 지닌 상임연구원 7명으로 구성된다.

주요사업은 미취업 예비역 장성 및 대령들을 통해 국방 및 군사관련 정책개발과 연구

·자문활동, 강연회 등을 개최하게 된다.

이번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을 발족시킴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국가투자로 양성되고 오랜 실무경험으로 국방 및 군사지식을 겸비하였으나, 과거에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는 시기에 전역함으로써 사장되었던 고급두뇌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연구에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폭넓은 활동과 연구결과가 국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